

聖學十圖의 中國 頒傳

——1569年 聖節使 書狀官 西厓 柳成龍에 依하여——

權 五 鳳*

I

聖學十圖에 對한 研究는 最近에 와서 韓·中·日·美 4國의 學者에 依하여 매우 活潑하게 展開되고 있다. 일찍이 退溪의 聖學十圖에 對한 關心과 研究는 한 時代의 儒學者들의 研究 對象이 아니었고, 退溪 沒後 끊임없이 註釋하고 分析하고 解義하고 應用한 微妙難澁한 學界의 研究 課題였다.

琴章泰 教授가 밝힌 바에 依하면, 聖學十圖에 對한 論議와 註釋을 하거나 十圖를 응용하고 圖를 그린 學者만도 33名에 이른다고 한다. 그 중에서는 退溪의 門人인 艮齋 李德弘(1541~1596)과 芝山 曹好益(1545~1609)이 있고, 今世紀의 儒學者로서는 널리 알려진 四末軒 張福樞, 後山 許愈, 秀山 金秉宗, 省齋 權相翹, 恭山 宋浚弼, 欽齋 崔秉心, 陽泉 丁大秀, 重齋 金樸 같은 분들이라 한다.¹⁾

最近에 學術의으로 깊이 研究한 學者로는 國內에 朴鍾鴻, 李相殷, 金斗憲, 柳正東, 尹絲淳, 安炳周, 琴章泰 및 書誌的 研究의 尹炳泰 諸教授가 있고, 國外에도 日本의 友枝 柳太郎, 高橋進 教授와 中國의 張立文, 美國의 Michael Kalton 教授들이 있다.

이들 學者의 研究는 聖學十圖를 製進한 退溪의 十圖 製作의 目的 糾明을 위시하여 譯註解와 敬哲學의 體系 및 天人合一과 理學要訣의 構造 分析 등이 中心을 이루고 있다.

이 中에서도 琴章泰 教授는 構造 分析에 이어 圖의 研究史를 試圖하였고, 退溪 沒後에 있었던 造屏, 作帖, 印本에 對한 刊行史와 經筵에서의 講義에 關한 調査까지를 하여, 後世 歷代 朝廷이 儒學을 振興시키고 普及한 內容을 學界에 밝혀 놓음으로써, 聖學十圖가 韓國哲學史에 끼친 影響과 功績을 살피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²⁾

II

이에 聖學十圖의 內容과 前述한 學者들의 研究 結果는 本論題와 直接 聯關이 없으므로 省略하여 當該 論著를 考覽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聖學十圖의 研究에서 아직 전히

* 浦項 工科大学 教授

1) 琴章泰: 「聖學十圖」 註釋과 朝鮮後期 退溪學의 展開, 退溪學報 第48輯 pp. 6—22, 1985, 退溪學研究院.

2) 全上.

손을 대지 않고 있는 中國에의 頒傳과 製進에서부터 初刊 印行까지의 刊行 過程에 관하여 論述하기로 한다.

먼저 聖學十圖를 製作할 때까지의 過程을 살펴 보면, 太極圖說에서부터 夙興夜寐箴까지 읽은 年代와 工夫한 要領을 退溪가 일일이 써 놓은 記錄이 없기 때문에 推定에 不過한 것이지만 1519年(己卯)부터 1568年(戊辰)까지 50年間の 肄學과 研究에서 이루어졌으리라는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

이 十圖 中에서 心統性情圖, 心學圖, 夙興夜寐箴 셋을 除外하고는 모두 朱子와 만나고부터 시작되어 朱子學을 完全 洞徹하고 난 뒤에 이루어졌다 할 수 있겠다.³⁾

退溪가 太極圖說을 처음 대한 것은 19歲인 1519年이고 性理大全 首卷에 있는 이 圖說을 理解하기 위하여 周易 공부를 하고 小學을 읽은 것도 바로 이 해의 일이었다. 그러므로 第一, 三圖의 製作을 위한 學問의 發端은 弱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第二 西銘圖, 第四 大學圖(太極圖說에는 靜에 대해서만 말하고 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므로 朱子의 註에 依하여 敬을 補充함), 第五 白鹿洞規圖, 第七 仁說圖, 第九 敬齋箴圖는 모두 朱子의 理論을 收容하였거나 그에 依하여 論理를 展開하였으므로, 이것은 23歲 때 成均館 游學時 朱子大全을 처음 入手해 읽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겠다.

또 心學圖(第八)에 關해서도 成均館 游學時節에 黃進士로부터 빌어 읽고 研究를 始作한 것으로 보이고, 第十圖 夙興夜寐箴圖에 關해서는 언제 처음 읽었는지를 알 수 없으나, 1558年(戊午)에 26 人 88歲・銘・贊을 모아서 古鏡重磨方을 纂輯하고 題詩를 읊은 것으로 보아 그 以前에 이미 읽고 愛讀했던 것으로 보인다.⁴⁾

특히 朱子의 白鹿洞規와 南塘 陳茂卿의 夙興夜寐箴은 지금도 陶山書院 典教室에 學規로서 退溪 親筆로 板刻하여 걸어두고 있으며, 書院 享禮 때에는 讀約하는데 禮安鄉約과 呂氏鄉約에 앞서 洞規를 꼭꼭 읽고 있다.⁵⁾ 따라서 後學이 宗師의 箴規를 끊지 아니하고

3) 李相殷: 退溪先生 圖說「聖學十圖譯解」, 1982, 退溪學研究院.

拙著: 「退溪先生의 生活實事(예년길)」 pp. 326, 330, 1988, 友信出版社.

4) 「古鏡重磨方」: 退溪先生 編輯, 寒岡 鄭述 後識.

「吾家錄」: 〈古鏡重磨錄에 「自警屏銘」爲齋姪作 退陶先生, 「屏銘」爲金士純作〉을 追加한 冊, 李正鎬 後識.

5) 陶山書院 享禮 때에는 讀約 行事가 있다. 第一日(乙日)에 立齋하고, 第二日(丙日) 正齋日 아침 行事로서 有司(齋, 別)가 새벽에 香謁을 하고, 朝食後에 典教室에서 開坐한 후 分定을 한다. 이 때 院長(首任) 以下 亞, 終, 分獻官은 東쪽에 列坐하고(白鹿洞規, 鄉約이 걸려 있는 아래), 執禮, 祝官, 齋有司, 別有司 및 執事者가 南北으로 나누어 序列메르 堵列해 앉는다. 坐定이 끝나면 齋有司가 洞規와 鄉約을 쓴 帖子를 가지고 獻官 앞에 나아가 恭遜히 앉아 맨 처음에 白鹿洞規를 읽고, 다음에 禮安鄉約을 읽은 후 이어서 藍田呂氏鄉約을 읽는다. 이 때는 全員이 꿇어앉아 齋任의 讀約에 따라 이 規・約을 마음 속으로 誦讀하며 儒生으로서 깊이 새겨 實踐할 것을 다짐한다. 이 時間은 배 오래 걸리지만 靜坐 生活에 익숙하지 못한 執事들이라도 嚴肅한 雰圍氣에 沒入하여 잘 견뎌낸다. 讀約이 끝나면 罷坐하여 獻官은 典教室 서쪽의 院長室에, 祝官과 執禮, 有司는 東齋인 博約齋로, 執事는 西齋 弘毅齋로 定해진 處所에 간다. 齋任의 그 後 行事는 省略하고, 다음 讀約은 第三日(罷齋日・丁日)에 있다. 丑時에 釋奠(제사)을 드리고 〈節次는 省略〉朝食後에 第二日 때와 같이 典教室에 開坐하여 〈이래도 前日과 같이 앉는다〉 飲福禮를 올린다. 禮가 끝나면 다시 자리를 바로잡고 讀約을 한다. 讀約이 끝나면 이로써 享禮를 마치게 되고 罷坐한다.

承繼해 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退溪 在世時에도 講磨 指針으로 삼았음을 理解할 수 있다.

이렇듯 68歲 때까지 50年間에 걸친 研究 結果는 이 十圖로서 構造化되고 圖說로서 組織體系化시켰지만, 屏帖으로 粧製를 한 것은 어디에서 影響을 받았으며 어떤 動機에서 이루어졌는지 疑問이 없을 수 없다.

退溪는 聖學十圖의 進劄에서 分明히 밝히고 있다. 自身の 作圖와 先賢의 創造를 確實히 밝혀 「昔之賢人君子 明聖學而得心法 有圖有說 以示人 入道之門 積德之基者 見行於世 昭如日星 茲敢欲乞 以是進陳於左右」라 하였다. 그리고 12월의 嚴冬에 70 高齡의 隆老로서 손은 떨리고 눈은 어두워 行字 均排가 准式치 못하였으므로 글씨 잘 쓰는 사람을 시켜서 쓰이고, 經筵官들의 論訂을 加하여 差舛된 點은 補足하도록 乞奏하였다. 그리고 精寫한 후 正本을 만들어 該當 司曹에 맡겨 御屏 一坐를 만들어서 淸燕之所에 펴두게 하고, 따로 작게 粧帖을 만들어 几案 위에 놓아두고 常時로 俯仰 觀省 警戒하라고 王에게 당부하였다.⁶⁾

入道之門과 積德之基로서 宣祖에게 聖學을 밝혔고, 心法을 얻게 하려고 十圖를 製進하여서는 箴規삼아 공부하도록 屏帖을 製作시킨 것은 참으로 效率的인 方案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造屏 作帖과 活用 및 效能에 대한 實驗은 退溪 自身の 經驗으로 얻은 結果로서 王에게도 勸한 方法이라 생각된다.

參考로 말하거니와 日本에서는 오늘날까지 글씨나 文圖를 가지고 屏風을 만들지 아니하고 그림이나 금박지로만 造屏한다.⁷⁾ 그들이 壬亂以後 우리 文化를 舶來品으로 直輸入하고 模倣하였지만 書屏 文化는 본뜬 것이 없다. 日本人은 오늘날 우리 半島를 거쳐 流入된 文化를 바르게 說明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隋唐으로부터 渡來하였거나 遣使에 依하여 輸入한 것으로 改作해 가고 있다. 日本의 이러한 狀況에서도 書屏文化는 아직까지 없다. 그들 말대로 中國으로부터 모든 文化가 東漸 流入하였다고 한다면 中國에 書屏文化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日本에 書屏이 없다면 中國에도 書屏文化가 없었기에 日本이 傳來할 수 없었던 것으로 되고,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 가져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書屏의 士俗은 日本에 싹틀 수 없었다는 結論에 이른다. 張皇하게 說明을 늘어놓는 까닭은, 壬亂 때 저렇듯 文化 侵奪이 심했음에도 倭軍은 屏風을 보지 못하였고, 또 가져 갈 것이 없었기 때문에 書屏文化가 日本에 건너가기 못하였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다. 換言하면 16世紀에는 우리나라에서도 書屏은 大衆的으로 實用化하기 않았다는 말이다. 論理의 飛躍일지 모르나 宮中內에 設置한 聖學十圖 屏風 一坐 以外에는 없었다고 推斷할 수도 있다. 兵火로 말미암아 燒燼된 十圖屏은 倭賊의 눈에 띄었을 리 없고 民間에

6) 「進聖學十圖劄并圖」退溪先生文集 卷七, 張 4~9.

7) 日本에 書屏이 없다는 것은 東京教育大學의 金子孫市 教授와 筑波大學의 高橋進 教授의 證言에 依한 것이다. 前者는 韓國의 某教授가 十圖를 보내어 筆者를 시켜 造屏 傳達할 때 直接 들은 이야기이고, 後者는 退溪學研究院이 製作하여 第8回 退溪學國際學術會議場에 展示할 때 高橋 教授와 여러 日本學者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그 類를 찾아 볼 수 없었으므로 日本에 傳來할 까닭이 없다. 따라서 書屏은 壬亂 當時에 우리나라에서도 흔하지 않았던 물건이다. 이에 대한 깊은 研究는 다른 分野에서 할 것이므로 줄이거니와 十圖 造屏은 꽤 興味 있는 研究 課題이다. 退溪가 64歲(1564年·甲子)때 읊은 「端居」詩의 註에는 屏風 이야기가 나온다.

耕也無端飯自纏 柴門常覺受人偏
杯停六藝難知味 屏玩三圖未契天
竹入窗中存性命 梅歸春末誤風烟
箇中所樂知何事 靜對遺經獨喟然

家有六藝杯 有短屏 寫河圖 洛書 太極圖 所居地寒 藏竹以窗 梅至暮春乃發
〈端居〉⁸⁾

이 詩에 依하면 退溪가 起居하고 있었던 寒棲庵(‘家有’云云이므로 陶山精舍나 溪上書堂은 아님)에는 河圖와 洛書, 太極圖를 各各 그린 작은 屏風이 있었던 것이 分明하다. 退溪가 그러서 만든 것인지 他人이 만든 것을 入手하였는지 註에 밝힌 바가 없어 더 이상 알 수 없으나 그 때까지 書屏 또는 易象圖가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短屏은 退溪가 製作한 것이고 書屏의 端初인 同時에 聖學十圖의 母體로 되는 것이다. 아무튼 退溪가 宣祖에게 屏風을 만드라고 勸할 때 이미 그는 學問의 眞粹를 縮約 圖化하여 屏風을 만들어 그를 들여다 보며 潛心 研究한 體驗家임을 證言해 준다. 結局 聖學十圖 圖屏은 退溪의 實驗的 所產物이고 最初에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이제 聖學十圖의 製進과 印刊에 關하여 論할 차례가 되었다. 十圖의 製進 日字는 두 가지로 傳한다. 退溪의 年譜에는 1568(戊辰)年 12月 16日(庚寅)로 記錄하였고 宣祖實錄에는 12月朔 1日로 적혀 있다.⁹⁾ 筆者가 쓴 生活實事에는 12月 1日로 說明하고 16日說을 ()로써 附注해 두었으나¹⁰⁾ 近刊의 退溪家年表에는 12月 16日 條에 年譜 記錄을 取하여 修譜해 두었다.¹¹⁾ 十圖 製進과 劄子 附署의 時差가 있었는지 아니면 實錄 編纂 때 任意로 하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退溪가 올린 劄子(進)에는 屏帖을 만드라는 말은 있어도 刊行하라는 말은 없었다. 그러나 宣祖는 12月 26日에 屏帖을 만들도록 下命하고 또 여러 臣僚들에게 頒帙을 위하여 印刊케 하고 夜對 때에는 進講하도록 命하였다. 이러한 經緯는 孫子인 蒙齋 李安道の 「蒙錄」과 鶴峰 金誠一の 「實記」에 昭詳히 적혀 있다.

8) 「退溪先生文集」〈內集 卷三, 張 57〉

拙著, 「退溪의 燕居와 思想形成」, p.111, 1989, 浦項工科大学 敎養學部.

9) 「宣祖實錄」〈卷三, 張 39〉, 朝鮮王朝實錄 通卷 21冊 p.220, 所載.

10) 拙著: 前掲書 「에 단길」 p.330.

11) 拙著: 「退溪家年表」 p.536, 驪江出版社, 1989, 12. 25.

「戊辰十二月二十六日 命以所上聖學十圖下政院曰 此十帖 作屏風以進 又一件體小作帖以入可也 傳曰 卿所上十圖 甚切於爲學 謹當作屏 展於左右以自警焉」(蒙錄)」¹²⁾

「進聖學十圖 上乃命作屏 又印頒羣臣 後上嘗於夜對 令進講是圖 侍經幄者 莫有能闡明其義者 皆以不知對 遂不果講聞者 莫不恨之」(鶴錄)」¹³⁾

鶴峯의 記錄에 經筵官들이 十圖를 理解 못하여 밝혀 進講할 수 없었다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夜對 進講은 退溪가 서울을 떠난 己巳年(1569) 3月 4日 以後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月 11日 夜對 때에 弘文館의 具思孟, 辛應時, 趙廷機, 尹承吉, 洪渾 등이 聖學十圖를 가지고 들어가 進講하려 해도 그들은 學問이 精深치 못하여 進講할 수 없다고 아뢰면서 ‘退溪가 在京中에 下問했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恨嘆한 內容이 堂后日記¹⁴⁾에 있는 것을 보면 造屏보다 進講은 늦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印刊 事業은 退溪의 落鄕中에 繼續된 일이라 하겠다.

宣朝가 印刊을 下命한 典據는 오직 鶴峰의 實記에 적힌 위의 記錄 밖에 筆者가 임지 못하였으므로 매우 貴重한 資料로 삼는다. 그 밖에는 退溪가 孫子 安道에게 보낸 家書에서 片片 摺拾 整理하는 수 밖에 도리가 없었다.

退溪가 서울을 떠난 7日後의 堂后日記에는

「己巳三月十一日 傳曰 夕玉堂持聖學十圖·…況館中 時未及校正 何敢易言」

이라 한 記錄이 있다. 이에 依하면 弘文館에서는 校正을 11日까지 미처 끝내지 못한 것 같다. 退溪가 歸鄕 途中인 3月 16日 丹陽에서 보낸 手札에 依하면 大司成 高峯 奇大升을 통하여 政院과 弘文館에 連絡을 하게 하였고 元本과 印刊 對校는 孫子와 潛齋 金就礪를 시켜 하도록 하였다.¹⁵⁾ 이러한 事實들로 推定한다면 退溪가 歸鄕할 때는 이미 刊行 事業이 推進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印刊 過程에 있었던 일은 家書에서 그 片鱗을 收拾할 수 있는데 이 內容은 聖學十圖의 刊行과 理解를 하는데, 또 今後 十圖를 模寫함에 있어서도 退溪의 뜻을 繼承하는데 必要하겠기에 몇 가지 紹介해 놓고가 한다.

① 第一圖(太極圖)之病 將爲時學誤入之階梯 爲恨耳 <陶山全書·四, p.301. 「答安道」>

② 圖印一張 來者校悉 但 其句點 兩圖處 必皆因元本 誤圖處而兩加之 不知元本是何本 乃有此多誤耶 可准 畢刻後 改作小樣 固知爲難 故已告而精 難改之意矣¹⁶⁾

③ 心學圖一幅 其上下兩傍 隋青佐洪而長世作之圖 體小而相去之 間疎體小故 其中填字 不得不小 間疎故看玩之際 目刀放漫 不相聯屬 此圖最不善作 可恨¹⁷⁾

12) 「退溪先生言行通錄」〈卷四, 張14, 後面〉, 蒙錄.

13) 「全上」, 鶴錄.

14) 「全上」, 張 14~15, 堂后日記.

15) 「陶山全書」3冊 p.217, 〈與安道孫乙巳〉

16) 「陶山全書」4冊, p.302, 〈答安道孫〉.

17) 「上揭書」全上.

④ 今他圖 既難從小改作 得改此一幅 幸矣 如欲改之 只依心經本圖模倣而作 稍展而大之 使與諸圖之體相稱 則必無如前之失矣 此則不煩煩白於諸公 只汝與而精金就講中 招李明光以吾言 詳細指教 使之改刻 宣無所不可也 若明光託以難自爲之 乃告於外 館主掌官而圖之 亦可也¹⁸⁾

⑤ 十圖之四 已附黃東萊之行去矣 但 其進圖簡子 不并刻耶 不則大欠 須問而處之¹⁹⁾

⑥ 十圖未來者二張 而精寄來 故校堪送還 但 簡子最末一張 今亦不來 何耶 既已畢刊 一時近來校去則可²⁰⁾

⑦ 十圖末一張 雖不送來 別無疑難處 須令而精 或汝持進于奇承旨大升 堪過後 印出爲當 不可每以校正之故 千里往復 以重延退也²¹⁾

⑧ 十圖 而精力圖印粧而送 感荷不可言²²⁾

⑨ 十圖 已粧入啓否 金而精印粧一件 又送三處 其意甚勤²³⁾

⑩ 十圖 改作小樣事 金士純誠一 欲與禹景善性傳 圖爲之 已面言而去 今送小樣影式一張及填書一張 以付士純 今此與景善 審度可否而善處之 仍須告其不煩 爲佳 士純近當上去耳²⁴⁾

이상의 書簡을 通하여 다음과 같은 事實을 窺知할 수 있을 것 같다.

① 印刻은 서울에서 李明光이 맡아서 새기고 初版 印刷한 것을 陶山에 보내어 退溪가 일일이 校正을 直接 하였다.

② 처음에는 簡子를 印刻하지 않으려 하였는데 退溪의 指示로 하게 되었다.

③ 進上한 처음 形式과 다른 小樣의 十圖가 있고, 그 形式과 十圖에 그린 篆書(填)는 모두 退溪가 손수 쓴 것이다.

④ 木板刻으로 刻字 印刊하였고, 心學圖는 잘 되지 않아서 再次 印刻하였다. 李明光의 能力으로 새기지 못하던 外部에 시켜 새기도록 하고 弘文館의 首任이 그래서 새겼다.

⑤ 十圖中에 마지막 印刻한 簡子 한 板의 校正은 高峯이 하였다.

⑥ 刊行中에 元本과 刷圖의 對校와 印粧 進上 및 連絡은 門人 金潛齋가 맡았었다.

⑦ 退溪가 初版 印本을 校閱한 후 修訂해 서울에 부치면 孫子 蒙齋가 일일이 高峯에게 아뢰도록 하였다. 그 후 改刻하는 일은 高峯이 맡아 하였다.

이와 같이 複雜하고 까다로운 過程을 거쳐 印刊이 끝난 것은 7月 下旬이었다. 退溪에게 올린 高峯의 7月 21日字 書簡에는 文昭殿에 관하여 稟議하고, 이어 聖學十圖의 印刊이 거의 끝나간다고 報告하였다.²⁵⁾

印刊을 끝낸 十圖는 8月中에 精粧을 하여 屏風을 만들어서 9月初에 圖帖과 함께 宣祖에게 進上하였다.

그리고 宣祖가 羣臣에게 十圖를 頒賜한 것은 9月 初4日이었고 그 頒帙處는 40餘司였다.²⁶⁾

그 後에 慶尚監司 驚渚 李陽元이 地方에도 印刊 頒布하기를 退溪에게 稟하였으나 退

18) 全上.

19) 「上揭書」 p. 303, 〈答安道孫〉.

20) 全上.

21) 「上揭書」 p. 304, 〈寄安道孫〉.

22) 「上揭書」 p. 305, 〈答安道孫〉.

23) 「上揭書」 p. 306, 〈答安道孫〉.

24) 全上, 〈寄安道孫〉.

25) 「高峯全書」〈往復書, 卷三, 張20, 己巳七月二十一日書〉.

26) 前註 9.

溪가 停止시켰다.

刊行된 十圖가 判中樞府事인 退溪에게 下賜된 것은 이듬해 庚午年 봄이었다. 退溪가 孫子에게 答한 다음 書簡으로서 알 수 있다.

「十圖頒賜一件 樞府送來 而樞府答狀 但 言受藥不言受十圖 樞府若仇叱同(下人名) 須以忘未入答之意 通于宋都事 爲可」²⁷⁾

이상이 印刊과 刊行後의 經過 概況이다. 그 후 追刊과 地方(星州, 海州, 咸興, 榮州, 平壤, 順天, 南原)刊 및 校書館刊에 관해서는 尹教授의 「退溪書誌의 研究」에 詳細하고, 重刊에 대해서는 琴章泰 教授가 調査 報告하였다. 그에 依하면, 屏風, 書帖, 印刊은 光海君 2年(1610)과 5年(1613), 仁祖 元年(1623), 肅宗 6年(1665), 英祖 31年(1755), 正祖 時(1799年) 있었다고 한다.²⁸⁾

IV

다음은 이 聖學十圖가 隣國 特히 儒學의 宗主國인 中國에는 언제 頒傳되었던가에 對하여 記述하고자 한다.

이에 關해서는 別로 注目하는 學者가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래서 報告된 研究 結果도 없다. 今年 10월에 退溪學 國際學術會議를 中國의 首都인 北京에서 開催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는데도 退溪學이 中國에 언제 傳來되었으며, 程朱學을 再集大成한 退溪가 中國에서는 어느 程度로 認識되었는가에 對해서 研究가 全無하다.

筆者는 「退溪家年表」의 己巳年 10月條에 ‘聖學十圖가 中國에 傳播되다’ 하고 修譜하였으나 今般 北京大會에서도 十圖의 中國 頒傳에 對해서 論及가 없었다는 소식을 듣고 晩時之嘆이 있으나, 北京大會가 있는 今年를 넘기기 前에 年表의 補足을 兼하여 이 論文을 急히 起稿해야 할 必要를 느꼈다. 退溪學報에는 61輯에도 重複 發表를 하였고 또 編輯者의 意見도 있어 不得已 해를 넘겨 明年 秋季 博約會 學術大會 때에나 發表할까 하던 차에 慶大附設 退溪學研究所長 金光淳 博士로부터 17號 研究論文集에 請稿의 惠蒙을 입어 敢히 이 小致를 寄稿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中國의 許多 儒學者들을 알고 있는 만큼 中國에서는 우리나라 學者를 評價하지 않는 탓인지 20世紀의 淸朝 以前에는 退溪를 舉論한 典據가 없는 모양이나 典據가 있어도 研究를 양는 때문에 숨겨져 있는지도 알 수 없다.

退溪가 中國에 알려지고, 聖學十圖가 中國 땅에 널리 頒傳된 것은 神州國粹公定國寶 第一號로 決定된 이후라고 國外 國內 學者들은 믿고 있다.

27) 「陶山全書」4冊, p. 309, 〈答安道孫〉.

28) 前揭 琴章泰 教授 論文 註 3.

通說에 依하면 清末(1920年頃)에 尚德女子大學의 基金 助成을 위해서 十圖를 國寶 第一號로 公定하고 刊行하였다 한다. 辛亥革命(1911年) 때 革命軍 首領이었으며 1916年에 第2代 大總統으로 就任한 黎元洪은

中華之所以異於夷狄 人類之所以異於禽獸

증화가 오랑캐와 다른 까닭이나

인류가 짐승과 다른 까닭이 여기에 있다.²⁹⁾

고 聖學十圖를 禮讀하였고, 또 清末 變法維新派의 代表的 思想家인 梁啟超가

巍巍李夫子 繼開一古今 十圖傳理訣 百世詔人心

雲谷琴書潤 濂溪風月尋 聲教三百載 萬國乃同欽

높디 높으신 우리 李선생님

옛잇고 후세 열어 고금을 깨웠었오.

열 폭 그림 속에 理學要訣 전하시어

百世에 길이길이 人心을 열으셨오.

글과 거문고는 주자를 따르셨고

풍월 같은 그 금회는 엄계에 비기었오.

높은 德性 넓은 教化 三百年에 미치시니

온 누리 사람들 뉘아니 공경하리오.³⁰⁾

하고 읊어 十圖와 아울러 頒布한 以後에 退溪와 聖學十圖는 中國에 널리 알려졌고, 退溪의 學問의 名聲이 高揚되었다. (이 中國版 十圖를 가지고 온 분은 獨立志士 陶庵 丁敦燮이고, 그는 愚潭集을 孔子後孫인 孔祥霖에게 보냈다. 退溪文集과 十圖를 가지고 갔다는 說이 있으나 아직 確認치 못하였다).

近年 中國에서 刊行한 이 聖學十圖를 入手하여 退溪學研究院에서 複寫 頒傳한 以後에 國內 學者는 勿論 이를 求得한 外國 學者들까지도 이제 完全히 清末에 聖學十圖가 건너간 것이라 믿게 되었고, 中國이 退溪를 알게 된 것도 이 때부터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리고 中國에서 刊行한 聖學十圖의 元本은 언제 건너간 것이며 누구에 依하여 傳達되었을가에 대한 究明은 아직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

V

筆者가 研究한 바에 依하면 聖學十圖는 이보다 約 350年前에 이미 中國에 傳播되었고, 그것도 退溪의 在世時이며 門人의 손으로 直接 中國의 性理學者에게 傳達되었다.³¹⁾

29) 前掲 拙著「예단길」p.337.

30) 全上.

31) 「西厓先生年譜〈己巳·先生三十八歲 十月 以聖節使 書狀官 兼 司憲府 監察 赴京〉(이때 正使는 靑蓮 李後白이었다)」.

「西匡先生年譜 卷一, 張四~六의 原典 寫本」

① 西匡先生이 書狀官으로 가서 吳京을 만나고 聖學十圖를 傳한 年譜 該條

② 西匡先生年譜刊行年度: 初刊本 言에 「今上己巳十月奉安位版于水山書院」이라 한 今上은 「重刊本에 肅宗」으로 되었으므로 一六八九年이다.

③ 「陶山及門諸賢錄」의 卷三 張二十二~二十三에도 年譜의 事實을 要約 轉載해 놓고 있다.

三年己巳先生二十八歲上疏論 仁廟仍祔延恩殿之
非禮初世宗於宗廟之外別立文昭殿以奉太祖及四親神主以事生之禮事焉成

郎○乞假省觀察公于清州時觀察公十月以出牧清州

聖節使書狀官兼司憲府監察赴京時李青蓮後

今則必無是事因引八就位從容成禮而罷○吳

公訪先生於王可館致殷勤之意先生以退溪先

生聖學十圖示之及先生還吳公以序及詩送之

詩曰遙持使節謁楓宸辭語丁寧詢門類已訖

玄譚閑隱日卻持半度發陽春鶴班立情難訴

鳴水鴻飛恨轉新別後音書那可得神嵩夢寐獨

傷神又於扇面畫兩人相別狀以八分書關山別

意四字以贈先生步其韻以答之後因使蓋往來

人以書若詩題先生書略曰延康府城固自有山

川開氣牽鍾哲人不繼道緱以弘開濟於一邦

在孔門卽七十子其人云先生答書並和其詩以

寄焉

四年庚午先生二十九歲三月回自燕京既歸上退溪先

京時與諸生問答語老先生覆書曰陸稼書拜

於天下公能發此正論點於其迷誠不易得也

丙寅登第己巳以書狀官赴 天朝太學生數百

人來觀公問中朝儒宗諸生曰王陽明陳白沙公

曰白沙見道未精陽明專出於禪當以薛文清為

宗有新安人吳京者喜而前曰近日學術汙舛士

夫越向公乃發正論以斥之可見深有意於闢異

端矣及序立班次有僧道二流立於前列公顧謂

諸生曰諸君及僉等以冠章甫之身反居彼輩後

耶序班言於鴻臚引二流序於使臣之後庭中莫

不動色其公訪公於王河館公以師門聖學十圖

示之及還吳過之以詩若書詩曰已訝玄談開麗

日却憐丰慶發陽春書山川間氣萃鍾吾人不

繼道統以弘開濟於一邦若在孔門卽七十子其

그 때 傳한 十圖가 清末에 刊行한 元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國內에서 印刊한 지 11個月後에 中國에 傳達되어 陶山에 落鄕해 있는 退溪보다 오히려 中國 學者의 손에 먼저 頒傳되었다.

今年 11月 27日에 退溪學 國際學術賞을 受賞한 辛冠潔, 蒙培元 教授를 만나 이 事實을 말하였더니, 驚愕罔措하고 重大 事件의 發見이라 하였다. 同席한 韓國學者도 그들과 같이 清末에 十圖가 中國으로 流傳된 것이라 믿고 있었으므로, 이에 그 出典과 함께 分明히 밝혀 두기로 한다.

1569年(己巳) 10월에 西厓 柳成龍은 書狀官으로 聖節上使 靑蓮 李後白과 함께 燕京으로 갔다. 그 곳에서 吳京(字·仲周)을 만나 學術을 論하고 聖學十圖 1件을 傳達하였다.

西厓가 詣闕을 하려고 잠깐 동안 宣治門 안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몰려든 數百名 太學生들에게 白沙와 陽明의 學問의 異端을 說破하고 薛敬軒(名·瑄, 字·德溫, 諡·文清, 世稱 薛夫子)의 學問을 讚揚한 후 薛文清으로 宗師를 삼아야 한다고 主張하였다.³²⁾

28歲의 젊은 西厓가 白沙·陽明學의 隆昌期에 바로 中國 首都 그 現地에 들어가 中原 學術의 汚舛을 指摘하고 正論을 펴 偏關된 邪說을 꾸짖고 排斥하였다. 西厓의 自信에 가득찬 論理는 스승 退溪로부터 傳受한 理論이겠지만 그 勇氣와 氣概는 우리나라 儒學 史上에 높이 評價되고 記錄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陶山 門下의 嫡傳중에 큰 한 脈으로 崇仰 받는 것도 바로 西厓의 이 正論 通達과 陶山學을 中國에 移入한 이 功績이라고 筆者는 보고자 한다.

太學生이 宗師로 삼는 中國의 大思想家를 異端으로 規定하여 排斥하고 師門(斯文)의 正學을 儒教 宗主國에다 逆輸出하였다. ‘白沙는 道를 보는데 精微하지 못하고, 陽明의 學問은 모두 禪에서 나왔으므로 나의 생각으로는 薛敬軒으로서 宗師를 삼아야 할 것이다.’는 簡明하며 條理 整然한 論理를 展開하여 吳京으로 하여금

‘오르름 學問하는 方法이 汚舛되었기 때문에 學者들이 目標을 잃어기 太學生들의 對答이 白沙와 陽明을 宗師로 믿게 되었다.’

고 是認하게 하였으며, 西厓의 異端 排斥에 共感을 넘어 感服하게까지 하였다. 그리고 西厓는 明의 當時 國法이 잘못되었음도 서슴없이 喝破하여 序班과 禮官으로 하여금 고치게 하였다.

詣闕 때 西厓가 指摘한 具體적인 內容은 이러했다.

序列에 따라 차례로 줄을 섰을 때 道士와 僧들이 그들의 服裝을 하고 五品の 序列에 끼어 있는 것을 西厓가 目擊했다. 西厓는 太學生들에게

‘그대들이 선비의 衣冠을 하고 거들의 뒷줄에 서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고 물었다. 이에 太學生들은

32) 同上 雙注 參照.

‘國法이 그러하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하였다. 西匡가 그 말을 듣고 序班에게

‘우리들이 비록 外國人이라 하지만, 禮服을 갖춘 身分인데 道士와 중들의 아래에 설 수는 없는 법 아니오!’

하고 나무랐다. 그러자 序班이 禮官에게 말하여 그들을 使臣의 뒤통수에 물려나 서게 하였다. 이 순간 堵列에 선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와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우리나라 사신을 업신여긴 中國 사람들은 東閣 宴會 때에 不良輩가 와서 宴會場의 飲食을 掠奪해가도 말리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 使臣이 坐定하면 陪강도가 달려들어 음식물을 약탈해 가서 宴會가 제대로 끝난 적이 없었다. 이를 알고 있는 西匡는 宴會場에 들어서기 전에 序班을 불러

‘듣자니까 차려주는 음식물이 不良輩한테 약탈 당한다던데, 그리되면 皇帝께서 下賜한 것이 陪강도의 손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도 종단 말ियो. 이 집 不快하기 짝이 없으니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게 낫지 않겠소.’

하고, 宴會에 參席 앉으려 하였다. 그제야 말뜻을 알아듣고 부끄러운 表情을 하며, 들어가 禮官에게 알리고 얼마 후에 다시 나와서

‘이번에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인도하였다. 이날은 指定된 座席에서 조용히 飲食을 들고 무사히 宴會를 마칠 수가 있었다.³³⁾

나중에 西匡가 목고 있는 玉河館으로 吳仲周가 찾아와서 慰勸한 情을 表하였다. 그 때 西匡가 印本 聖學十圖 一件을 보여 주었다.³⁴⁾ 記錄은 이까지 써어 있으나 그 十圖를 보이기만 하고 도로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國內에는 이미 板刻이 있고 印本도 頒賜되었으므로 稀貴하지 않으므로 吳京에게 선사하였을 것은 現代人의 外交 感覺으로도 充分히 理解되고, 西匡가 가지고 간 이상 中國 땅에 傳播하기 위하여 주었으리라는 것은 疑心의 餘地가 없다.

이리하여 聖學十圖는 西匡의 힘으로 中國 燕京에 傳達되었다.

西匡가 돌아올 때에 吳仲周는 序를 쓰고 詩를 읊어 餞送하였으며, 두 분의 交際는 使臣과 人便을 通하여 그 後에도 繼續되었다. 그 때 吳仲周는 送別詩를 이렇게 읊었다.

遙持使節滿楓宸

譯語何勞詢問頻

33) 同上.

34) 同上.

已訝玄譚開麗日	却憐手度發陽春
鵲班鵲立情難訴	鴨水鴻飛恨轉新
別後音書那可得	神嵩夢寐獨傷神

이로써 聖學十圖의 中國 頒傳이 退溪 易簣 1年前인 1569年(己巳) 10월에 이루어졌다. 時期가 明白하고, 傳達者는 西厓이며 傳受者가 吳京임도 分明해졌다.

그리고 陳白沙, 王陽明의 學問이 隆盛했던 16世紀末의 明나라 學風과 生活相의 한 모습도 明確하게 把握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退溪의 理學要訣인 聖學十圖가 中國 學界에 어떻게 傳播되었으며, 性理學은 退溪로부터 어떠한 影響을 받았는가 하는 問題는 吳仲周에 對한 研究가 이루어짐으로써 실마리가 풀려나갈 것으로 보이나, 現在로서는 筆者의 能力이 미치지 않는다. 西厓가 다녀온 以後의 16世紀 末葉과 17~19世紀의 中國思想史를 穿鑿하고 吳門 系統의 學問을 研究한다면 決코 不可能할 것도 아니다. 이것은 今後의 課題로 삼는다.

II

西厓는 書狀官의 任務를 끝내고 歸國하여 忠淸監司로 淸州에 계시는 父親 立巖 柳仲郢에게 謁親을 가서 師門 退溪에게 歸國 報告를 하였고 退溪는 이에 答狀을 보냈다. 1570年(庚午) 4月 下旬으로 짐작되는데 退溪는 答狀에서 ‘燕京에 간 사람은 많은데도 그들을 만나 論理를 세워 달한 사람은 몇이나 있던가, 公은 數百諸生을 만나 能히 正論을 폈으니 쉽지 않은 일이다.’³⁵⁾ 하고 西厓를 稱讚하였다. 그리고 吳仲周에게 情이 가서 西厓와 吳公이 서로 送別하려던 일이 어긋났다는 글을 읽고 그 點을 退溪가 自身이 겪은 듯이 못내 恨스러워 하였다.

退溪의 이 答狀은 西厓를 慰勞하였을 뿐 아니라 스승의 學問을 陸禪으로 懷慕된 中原天下에 퍼고 왔음을 크게 致賀한 것으로 보인다.

退溪는 易簣 8個月 前에 그의 學問이 中國에 傳達되었음을 確認하였고, 西厓는 28歲의 젊은 나이로 先生學을 儒學의 宗主國에 실고 온 最初의 宣揚 道統 傳授者가 되었다.

이로써 退溪學은 420年前에 이미 中國 北京에 傳達되었고, 또 約 350年後에 百世詔人心, 萬國乃同欽이라 敬仰을 받았으며, 가까이는 臺灣, 香港의 國際學術會議에 이어 今年 1989年 10월에 退溪 歿後 418年만에 다시 北京에서 宣揚하게 된 것이다.

1989年 12月 12日 於 石灘書室 草稿

35) 退溪先生文集 卷三十五, 張 36 〈答柳而見〉.

「數日前 傳聞好還 不及修賀 而適奉珍緘 來自西原 備悉途中諸況(中略) 今以辱示觀之 京師四方之極 聲名所華 士習學術 汚舛如彼 不知是天然耶 抑人實爲之 以今云云揆前日 尹子固問答 及魏時亮諸說 陸禪懷慕於天下 及如是 令人浩歎不已 然入燕者數多 能遇此等人 作此等話頭者 亦無幾 公能遇數百諸生 發此正論 略點其迷 不易得也 第吳京欲相送 與之相違 是果爲假事矣 啓蒙翼傳 今始刊於星州 若後行賀來 則其闕板 猶可追補刊也」